



KWC 2019 Italian Wine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2019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탈리아 와인의 비상이다. 총 137종을 출품한 이탈리아는 13년 만에 1위 자리에 다시 올랐다. 또한 와인의 퀄리티와 대중성, 다양한 지역들의 출품 시도 등으로 한국 시장내에 확고한 자리를 다시 한 번 굳힐 수 있었다. KWC 2019의 이탈리아 와인의 특징과 수상 와이너리들을 지역별로 정리해 본다.

글 이정은 사진 장영수, 위키피디아, Freepik 참고자료 (유서 깊은 이탈리아 와인) 최훈 저

와인의 퀄리티

15회째 행사를 치른 올해의 KWC에서는 이탈리아 와인의 평준화된 퀄리티가 이슈로 등장했다. 바롤로나 끼안티의 와인에서 시작한 이들 와인의 품질은 이제 반도의 끝에 자리 잡은 시칠리아 섬의 와인까지 그 퀄리티의 정점을 찍고 있다.

토착품종의 대중성

네비올로, 산지오베제는 이제 맛이나 발음까지도 친숙한 와인이 되었다. 이번 KWC에서는 아브루쑈의 몬테풀치아노, 토스카나의 브루넬로, 마르케의 베르디기오, 시칠리아의 네델로 마스칼레제까지, 각 지역의 토착품종들의 화려한 등장이 돋보였다.

다양한 지역의 발견

이번 KWC에서 이탈리아 와인은 토착품종의 평준화된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생산자들의 출품이 큰 수확이었다. 한국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참여는 다양한 이탈리아 지역의 와인을 접해볼 수 있는 값진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 VENEZIO



베네토는 북부지방은 알프스 산맥으로 인한 차가운 기후대를 보이고 동남쪽은 포 강의 유역과 평원 그리고 아드리아 바다로 인해 온난하다. 이에 비해 서쪽은 가르다 호수와 산악이 혼재해 있어 각기 상이한 대륙성 기후대를 보인다. 이런 조건은 베네토 와인 생산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곳에 주요 와인이 나는 곳은 먼저 가르다 호수 동쪽에 자리한 발폴리첼라(Valpolicella)로 레드 와인의 주산지이며 레치오토와 아마로네 등의 명주가 난다. 그리고 베로나 인근에 자리한 소아베(Soave) 지역은 이름난 화이트 와인의 산지이다. 그 외에 베로나의 동북쪽 트레비조 인근에 자리한 발도비아데네(Baldobbiadene)와 코넬리아노(Conegliano) 와인 산지가 있다. 이곳에서는 최상의 스프만페인 프로세코가 생산된다. 또한 가르다 호수의 동남쪽에 자리한 바르도리노(Bardolino)는 마시기 수월한 레드 와인이 양조된다.

■ Bottega S.p.A. 보떼가

보떼가는 4세기 전부터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양조한 곳이다. 이 와이너리는 먼저 증류주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스틸 와인, 스파클링 와인까지 생산량을 넓히고 있다. 보떼가의 본부는 베네토의 트레비조에 위치하고 있지만 발폴리첼라 지역에도 와이너리를 두고 있다. 이밖에 토스카나에도 포도밭을 사들여 이곳 토착품종으로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생산된 와인은 13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80여 개의 수상 메달 기록을 가지고 있다. 수입사 데바인컴퍼니

수상와인 리스트

- Best Italy**
- Bottega Il Vino Dei Poeti Brunello di Montalcino
- Gold** Bottega Il Vino Dei Poeti Rosso di Montalcino
- Silver** Bottega Il Vino Degli Dei Amarone DOCG
- Bottega Millesimato Brut
- Bottega Ripasso Valpolicella Superiore DOC
- Bottega Rose Gold Brut
- Bronze** Bottega Gold Prosecco DOC

■ Brigaldara 브리갈다라

브리갈다라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가족경영 와이너리로 베네토의 발폴리첼라에 위치하고 있다. 와이너리의 이름인 '브리갈다라'는 와이너리 건물인 빌라와 농장, 포도밭을 포함한 이름이다. 이들은 1979년부터 본격적인 와인 생산에 주력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현재는 매년 30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총 5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위치에 따라 토양, 미세기후를 기준으로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와인 리스트

- Silver** Brigaldara Amarone della Valpolicella Cavolo, Brigaldara Amarone della Valpolicella Classico

■ Masi 마시

마시 와이너리는 발폴리첼라의 심장부인 가르가냐고 디 발폴리첼라에 자리 잡고 있다. 18세기 말 보스카이니 가문에 의해 설립된 이곳은 현재 가문의 6대 및 7대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총 993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체 양조기술 그룹을 만들어 아빠씨멘토의 방식을 연구, 이름난 아마로네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잊혀진 품종인 오세레타(Oseleta)를 재발견하여 양조를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와인 리스트

- Gold** Masi Mazzano **Silver** Masi Campofiorin

•TOSCANA

이탈리아 반도의 중서부에 자리한 토스카나는 빼어난 풍경과 더불어 와인의 명산지로 익히 알려져 있다. 티레니아 해안을 따라 이 지방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끼안띠, 끼안띠 클라씨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까르미나노 등의 화려한 레드 와인이 양조되고 있으며 산 지미냐노에서는 이곳을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도 생산된다. 또한 이들 전통 와인에 더해 1960년대부터 기존의 DOC 체계를 뛰어넘어 볼게리 일대에서 슈퍼 투스칸 와인이 빛어지면서 토스카나 지방은 이 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와인의 고향으로 불리게 되었다. 토스카나 와인은 아펜니노 산맥을 따라 발치에 발달한 언덕들에 포도밭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는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 토양은 주로 사토, 진흙, 석회질 등으로 돼 있다. 포도밭의 총 재배 면적은 57,861ha이며 와인의 총 생산량은 2016년 기준, 2,657,000hl이다.



■ Aia Vecchia 아이아 베기아

세기를 이어오며 와인을 양조한 펠레그리니(Pellegrini) 가문은 1996년 아이아 베기아를 설립한다. 이곳은 토스카나의 해변을 마주한 볼게리, 마렘마 그로세타나를 거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이곳에 항가리의 유명한 와인메이커인 티보르 갈(Tibor Gal)에게 와인컨설팅을 맡겼으며 포도밭의 관리도 뉴질랜드 출신의 다니엘 슈스터(Daniel Schuster)에게 일임했다. 그는 포도밭을 구획별로 나누고 품종을 클론별로 관리하여 재배하였다. 1998년 첫 와인인 라고네(Lagone)를 출시하면서 세계 와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입사 솔트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Aia Vecchia Sor Ugo Bolgheri Rosso Superiore

■ Bibi Graetz 비비 그라츠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출신의 비비 그라츠의 부모는 피렌체 외곽에 위치한 피에졸레 지역의 오래된 성인 빈칠리아타 주변에 포도밭을 사들이고 정착했다. 2000년에 비비 그라츠는 산지오베제 100%로 양조한 테스타마타(Testamatta; Crazy Head)라는 와인을 시중에 내놓고 독특한 컬트 와인메이커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토착품종인 까나이올로와 꼴로리노에 집중하고 있으며 토스카나에서 떨어진 질리오 섬에서 안소니카라는 품종으로 개성이 강한 화이트 와인의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Bibi Graetz Casamatta
Silver Bibi Graetz Testamatta White

■ Castello di Gabbiano 카스텔로 디 가비아노

12세기부터 와인을 양조한 카스텔로 디 가비아노 와이너리는 중세 시대의 고성을 그대로 와이너리로 사용하고 있다. 총 139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와인메이커인 페데리코 체렐리(Federico Cerelli)의 영혼을 담은 노력과 열정으로 와인인이 생산되고 있다. 산지오베제,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등을 주력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카스텔로 디 가비아노의 끼안띠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입사 LB

수상와인 리스트
Bronze Gabbiano Pinot Grigio

■ Famiglia Cecchi 패밀리아 체끼

패밀리아 체끼는 세기를 이어오며 최상의 이탈리아 와인을 세계 시장에 알린 와인 기업이다. 1893년 루이지 체끼(Luigi Cecchi)에 의해 와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끼안띠의 카스텔리나로 와이너리를 옮긴다. 패밀리아 체끼는 끼안띠 클라씨코로 포도밭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레인지의 와인 생산에 주력한다. 와인 양조의 역사와 비즈니스에 탁월한 경력을 가진 패밀리아 체끼는 현재 토스카나를 중심으로 와인 생산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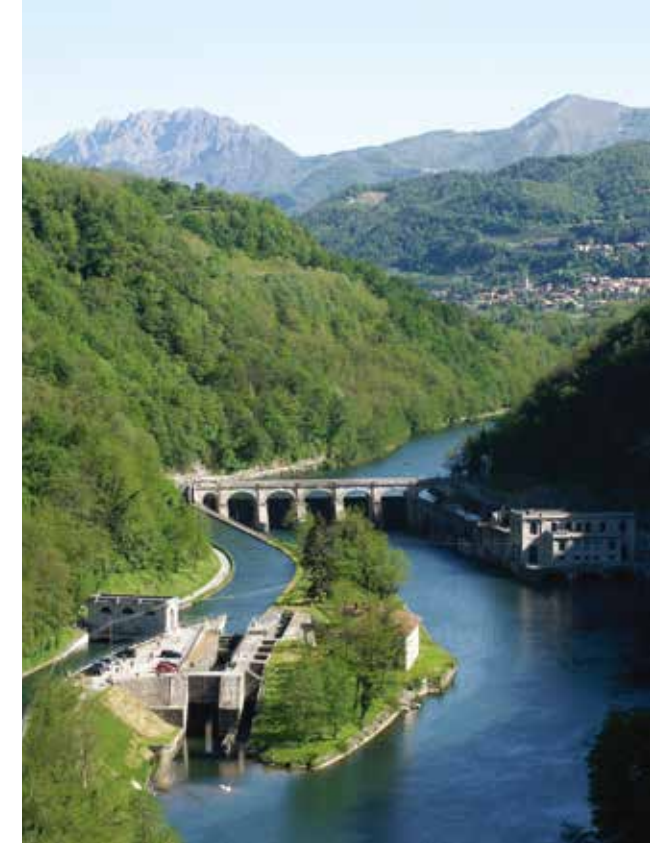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와인 리스트
Gold Famiglia Cecchi Val della Rose Aurelio Maremma Toscana Rosso DOC
Silver Cecchi Covo

■ Tenuta Rossetti 테누타 로세띠

테누타 로세띠 와이너리는 토스카나의 핵심 지역인 피렌체와 피사에서 몇 km 떨어지지 않은 빈치(Vinci)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아브루쑈의 대표 와인 그룹인 판티니 그룹이 경영을 맡고 있다. 이들은 토스카나의 다양한 품종으로 와인을 양조하고 있으며 와인의 가격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와이너리로도 이름나 있다. 현재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병입 시설 및 숙성 시스템으로 와인의 퀄리티에 주력하고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와인 리스트
Gold Tenute Rossetti Tino Rosso Toscana
Silver Tenute Rossetti Chianti DOCG
Silver Tenute Rossetti Governo all'Uso Toscano Rosso Toscana
Silver Tenute Rossetti Linda Bolgheri DOC



•LOMBARDIA

롬바르디아는 포 강이 만든 광활한 유역의 곳곳에서 와인산지가 들어서 있어 훌륭한 와인이 나고 있다. 몇 곳의 산지를 정리하면 먼저 발텔리나(Valtellina)가 있다. 이곳은 롬바르디아 최북단에 자리하고 알프스를 거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아다 강의 영향으로 포도재배가 수월하다. 토양은 자갈밭이어서 밤에 복사열을 전달하고 알프스 산들이 거친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해준다.

빼어난 풍경을 떠나 유일하게 네비올로가 재배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롬바르디아 중앙 이제오 호수 주변에 완만하게 발달한 구릉과 언덕에 위치한 프란치코르타(Franciacorta)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푸만페의 와인산지이다. 이곳은 프랑스의 샹빠뉴와 마찬가지로 'Franciacorta'라는 이름으로 스푸만페의 와인이 병입되어 출시된다. 마지막으로 포 강 유역에 발달한 올트레포 파베제(Oltrepo Pavese)는 롬바르디아의 DOC의 2/3가 몰려있을 정도로 스푸만페 이외에도 테이블 와인의 양조가 활발하다. 롬바르디아의 총 포도재배 면적은 22,900ha이며 2016년 기준 1,301,000hl의 총 생산량을 보인다.

■ Vigne Olcru 비네 올크뤼

롬바르디아의 올트레포 파베제에 위치한 비네 올크뤼 와이너리는 귀족적인 빼노 네로로 이름을 알고 있는 곳이다. 와이너리의 이름인 'Olcru'는 올트레포 파베제의 앞부분과 최상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이들의 포도밭 즉 Cru를 붙여 만들어졌다. 비네 올크뤼는 밀라노와 피아첸자의 대학과 협력하여 와인 양조, 포도의 재배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하고 있어 젊은 와인생산자들을 육성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Vigne Olcru Antico Tralcio
Silver Vigne Olcru Coppiere Nero

■ Ruffino 루피노

1877년 피렌체의 폰타씨에베(Fontassieve)에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루피노는 리제르바 두칼레의 모체가 되는 스트라베끼오 끼안띠를 생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DOC/DOCG에 대한 등급 체제에 열매이지 않고 마렘마 지역에 투자하면서 슈퍼 투스칸 와인인 모두스를 출시하며 다시 한 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현재 루피노는 끼안띠, 끼안띠 클라씨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마렘마까지 총 400ha를 소유하면서 연간 약 2,700만병의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 나라셀라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Ruffino Lumina Pinot Grigio

■ Vallepiciola 발레피치올라

발레피치올라 와이너리는 토스카나의 끼안띠 클라씨코의 심장부인 발레피치올라에 위치한다. 즉 시에나의 카스텔누오보 마을에 속한 곳이다. 이곳은 현재 265ha의 토지에 65ha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40ha는 2019년에 새로 포도나무를 심은 곳이다. 발레피치올라는 끼안띠 클라씨코 와인을 위한 산지오베제를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이밖에 빼노 네로,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뿌띠베르도, 샤르도네에도 포도밭을 할애하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Gold Vallepiciola Chianti Classico



PIEMONTE

삐에몬떼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토스카나 지방과 더불어 질 좋은 와인을 내는 명산지로 꼽는다. 이곳을 대표하는 와인산지로는 랑게(Langhe)와 몽페라토(Monferrato)의 언덕이 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의 장강인 포 강이 관류하면서 넉넉한 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 두 언덕의 훌륭한 떼루아를 조성하고 있는 타나로(Tanaro) 강이 있어 삐에몬떼 최상의 와인을 양조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 강이 지나가는 유역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와인의 명소인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아스티,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외에도 수많은 서브 지역들이 산재해 있다. 삐에몬떼의 총 재배면적은 48,100ha이며 2016년 기준 2,580,000hl의 생산량을 보인다. 재배되는 레드 품종에는 바르베라, 보나르다, 브라께토, 돌체토, 프레이사, 그라놀리노, 네비올로, 루께 등이 있으며 아르네이스, 꼬르테제, 아르베루체, 모스카토, 나체따, 로쎬제 등의 화이트 품종이 재배된다.

Adriano Grasso 아드리아노 그라소

몽페라토의 칼로쎬(Calosso)에 위치한 아드리아노 그라소는 6ha를 소유한 작은 곳이다. 와인메이커이자 주인인 아드리아노 그라소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모든 포도 재배를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까지 받고 있다. 그는 포도밭에서 채취한 자연 효모를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를 진행하고 발효시 생성된 포도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 24개월의 숙성 과정을 거친다. 병입은 하얀달이 뜨는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와인 리스트

Gold Adriano Grasso Barbera d'Asti Superiore

Batasiolo 바타시올로

바타시올로는 삐에몬떼의 랑게 지역에서 가장 큰 와인 생산자 중 하나로 돌리아니(Dogliani) 가족 소유의 와이너리이다. 1978년 돌리아니 형제가 라 모라(La Morra)의 와이너리를 인수하면서 바타시올로는 바롤로, 바르베레스코, 바르베라 다스티, 돌체토, 모스카토, 가비 등의 와인을 생산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또한 바롤로의 5개 크뤼 포도밭인 브리콜리나, 체레퀴오, 보스카레토, 부르나테, 부씨아에서 최상급의 바롤로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수입사 와이닐

수상와인 리스트

Gold Batasiolo Moscato d'Asti Bosc d'La Rei
Silver Batasiolo Arneis **Silver** Batasiolo Barbera d'Asti Sabri
Bronze Batasiolo Barolo Cerequio

Cascina Lo Zoccolao 까시나 로 조콜라이오

까시나 로 조콜라이오는 바롤로의 작은 언덕의 이름을 그대로 와이너리의 이름으로 따왔다. 랑게 지역을 거쳐 로에로, 몽포르테로 이어지며 총 3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포도밭이 위치한 몽포르테 달바, 베르두노, 라베라, 노벨로의 세부지역은 바롤로를 양조하는 네비올로를 위시해 바르베라, 돌체토를 최상의 상태로 얻어내고 있다. 이밖에도 까베르네 소비뇽, 삐노 네로의 재배도 활발하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와인 리스트

Gold Lo Zoccolao Barolo Riserva Ravera
Silver Lo Zoccolao Langhe Baccanera

Domenico Clerico 도메니코 클레리코

도메니코 클레리코는 랑게의 심장부인 몽포르테 달바에 위치하고 있다. 1979년 도메니코 클레리코는 자신의 첫 바롤로를 내놓고 바롤로의 모더니즘파를 이끈다. 그는 고급스러운 과일 향을 내세운 자신의 바롤로 와인에 자신감을 갖고 새 오크의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완성도를 높은 바롤로를 생산하고 있다. 몇 년 전 도메니코 클레리코는 자형인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바롤로는 현재까지 수많은 찬사와 극찬을 받으며 사랑받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Domenico Clerico Barolo

Fratelli Ponte Vini 프라텔리 폰테 비니

세계대전 직후 카를로 폰테(Carlo Ponte)가 알바의 산 다미아노(San Damiano)에 바르베라 포도밭을 사들이면서 와이너리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후 60여 년을 이어오면서 와이너리는 3대째인 마씨모(Massimo), 이반(Ivan), 레나토(Lenato)의 형제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최고의 그라빠 장인인 로마노 레비(Romano Levi)가 디자인한 개성 있는 레이블로도 와이너리의 이름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Fratelli Ponte Vini Barbera d'Asti

Giacomo Fenocchio 자코모 페노끼오

삐에몬떼 몽포르테(Monforte)에 위치하고 있는 자코모 페노끼오 와이너리는 전통적인 바롤로 스타일을 고수하며 200여 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자코모 페노끼오 와이너리는 포도밭이 위치한 미세기후와 토양에 대한 연구로 각각의 포도밭을 크뤼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 발효의 시간, 마세라시용의 기간을 길게 할애하는 방법을 고수하여 누구보다 개성이 강한 바롤로를 양조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와인 리스트

Gold Giacomo Fenocchio Dolcetto d'Alba

Mauro Sebaste 마우로 세바스테

마우로 세바스테 와이너리는 60년대 초 '랑가의 여왕(Dama di Langa)'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마우로 세바스테의 어머니가 세운 곳이다. 현재는 마우로와 그의 부인 마리아 테레사(Maria Teresa)와 아들 실라(Sylla)가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약 3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퀄리티 있는 와인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연간 120,000병의 와인과 함께 5,000병의 그라빠도 만든다. 거의 대부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수입사 다빙셀렉션

수상와인 리스트

Bronze Mauro Sebaste Barolo Tresuri

Negretti Azienda Agricola 네그레티 아지엔다 아그리콜라

삐에몬떼의 라 모라(La Morra) 지역에 위치한 네그레티 와이너리는 4대째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네그레티는 모든 포도밭을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연의 위대함을 바탕으로 수확한 포도의 캐릭터를 최대한 표현해 내는 와인 양조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네비올로, 바르베라, 샤르도네를 주 품종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수입사 샤프트레이딩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Negretti Langhe Chardonnay DADA

Cantine Povero 칸디네 포베로

칸디네 포베로는 1837년 프란체스코 포베로(Francesco Povero)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1964년 지오반니(Giovanni)와 미켈리노(Michelino) 형제가 공식적으로 칸디네 포베로를 다시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가족경영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삐에몬떼의 로에로 치스테르나 다스티(Cisterna d'Asti) 지역의 경사면에 위치한 이들은 총 2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싱글 빈야드로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0만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WS통상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Cantine Povero Cabane Langhe Rosso



“ABRUZZO

아브루쑈의 와인산지는 크게 아펜니노 산맥이 이어지는 내륙 쪽과 아드리아 바닷가를 앞에 두고 있는 평원지대로 나뉜다. 이중 테라모, 페스카라, 키에티가 아브루쑈의 대표적인 와인인 나는 곳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마르케 지방의 바로 남쪽에 자리한 테라모는 2003년 콜리네 테라마네(Colline Teramane)로 DOCG의 품계를 받고 있다. 아브루쑈의 기후는 서쪽 산악지대가 고산 기후대를 보이고 동부 해안 지대는 건조한 여름, 온난한 겨울을 보이는 해양성 기후대이다. 강우량은 최소 500mm에서 최대 2,000mm 수준이다. 토양은 주로 석회질의 점토가 많다. 재배되는 중요 품종에는 아브루쑈를 대표하는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쑈가 레드 품종으로는 우세하며 화이트에는 트레비아노, 봄비노 비앙코 등이 재배된다. 아브루쑈의 총 재배면적은 31,960ha이며 2016년 기준 2,649,000hl의 생산량을 보인다.



■ Azienda Vinicola Talamonti

아지엔다 비니콜라 탈라몬티

탈라몬티 와이너리는 2001년 아브루쑈의 로레토 아프루티노(Loreto Aprutino) 지역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설립 당시부터 포도밭 관리를 철저한 유기농법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100% 재생산이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와이너리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와이너리의 양조 시스템에도 지속 투자를 하여 지하 3층에 이르는 최신식 설비의 셀러를 구축하여 퀄리티와 인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수입사 빈티지코리아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Talamonti TRE SAGGI-Montepulciano d'Abruzzo DOC

■ Cantine Mucci

칸띠네 무치

칸띠네 무치는 1895년, 아브루쑈에 설립되었다. 무치 집안의 조상인 루이지 무치(Luigi Mucci)는 와인에 대한 지식, 열정, 토양에 대한 사랑이 세 가지 요소를 능숙하게 혼합하여야 최고의 와인을 얻을 수 있다고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현재 아우렐리아(Aurelia)와 발렌티노(Valentino)는 이 가르침을 기본으로 가족들과 함께 더 나은 와인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와인 시장에서는 칸띠네 무치의 몬테풀치아노, 트레비아노 다브루쑈, 팔랑기나 테레 디 까에디, 베꼬리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Cantine Mucci Kubbadì Rosso Terre di Chieti IGT

■ Fantini Group

판티니 그룹

판티니는 기존에 파네세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와인 그룹의 새로운 이름이다. 파네세는 1582년부터 아브루쑈의 오르토나(Ortona)에서 와인을 생산한 까밀로 데 아올리스(Camillo de Iulis)에 의해 본격적인 와이너리로 성장하였고 1994년 남부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그룹으로 성장했다. 2012년 그가 죽자 현재의 CEO인 발렌티노 시오티(Valentino Sciotti)가 파네세의 경영을 맡았다. 이후 파네세는 아브루쑈를 기반으로 남부 와이너리를 해외 시장에 알리는 대표 주자로 인정받게되었다. 수입사 와이닐

수상와인 리스트

Gold OPI Montepulciano d'Abruzzo Riserva
Silver Fantini Calalenta Terre Siciliane Rosato
Silver Fantini Collection Bianco
Silver Fantini Montepulciano d'Abruzzo
Bronze Casale Vecchio Montepulciano d'Abruzzo
Bronze Edizione Cinque Autoctoni 18



“CAMPANIA

■ San Lorenzo Vini

산 로렌조 비니

산 로렌조 비니는 이탈리아의 중부, 아브루쑈의 테라모(Teramo)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가족경영 와이너리로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산 로렌조 비니는 총 15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밭은 아펜니노 산맥에서 가장 높은 그란 사쑈(Gran Sasso)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의 토양은 점토질과 석회암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 로렌조 비니는 천연 효모를 이용한 발효와 최신식 시스템을 균형 있게 적용하여 고품질의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San Lorenzo Casabianca Trebbiano d'Abruzzo
Silver San Lorenzo Escol Riserva Montepulciano d'Abruzzo Colline Teramane DOCG

■ Torre Raone

토레 라오네

토레 라오네는 1996년 루치아노 디 티찌오(Luciano di Tizio)와 안토니오 데밀리오(Antonio Demilio)가 공동으로 설립한 곳이다. 와이너리의 이름은 이 지역의 유명한 탑의 이름인 '라오네'에서 따왔다. 토레 라오네는 자연친화적인 농업 방식 및 각 와인 특유의 개성을 최대한 살려 와인을 양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총 30ha의 포도밭과 5ha 정도의 올리브 밭을 관리하고 있다. 모든 와인은 이탈리아 유기농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생산되고 있다. 수입사 LB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Torre Raone San Zopito Montepulciano d'Abruzzo

시칠리아와 함께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캄파니아는 그리스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이들은 처음으로 알리아니코, 팔랑기나, 그레꼬 등의 포도종을 이 지방에 전파했고 달리 로마인들은 팔레르눔, 캄피, 플레그레이, 베수비우스 그리고 아벨리노 등지에서 나는 와인들을 즐겨 마신 것으로 되었다. 캄파니아는 이탈리아 최상급의 와인인 DOCG의 와인을 4곳에서 내고 있다. 타부르노의 알리아니코, 아벨리노의 피아노, 투포의 그레꼬, 그리고 따우라지가 속한다. 이 지역들의 토양은 화산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우라지 주변의 화산인 캄피 플레그레이, 베수비오, 볼투레(바실리카타의 경계) 등의 3곳이 있어 이들이 뽑어낸 잿더미가 오늘날 포도밭의 훌륭한 토양이 된 것이다. 캄파니아의 포도재배 면적은 24,190ha이며 2016년 기준 총 와인 생산량은 1,664,000hl이다.

■ Cantina Vesevo

칸띠나 베세보

칸띠나 베세보는 아브루쑈에서 성공한 판티니 그룹이 와인 명산지인 따우라지에 새로운 와이너리를 설립하여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160곳의 포도 재배자와 판티니 그룹 간의 협업으로 생산체계가 잡혀있다. 포도밭 면적은 대략 5,000ha 정도다. 이곳에서는 수령이 200년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알리아니코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생산된 와인의 대부분은 해외시장에 수출되고 있으며 루카 마로니를 비롯한 유명 매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사 와이닐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Vesevo Ensis Taurasi



·PUGLIA

플리아는 온난한 겨울과 서늘한 여름으로 포도 경작지에 알맞은 지중해성 기후대를 보인다. 또한 표층이 철분을 머금은 붉은 토양에 중심층이 석회질이어서 포도 재배에 매우 이상적인 곳이다. 대표되는 품종으로는 프리미티보, 네그로아마로 우바 디트로이아, 봄비노 비앙코, 베르레까 등이 있다.

대표적인 와인 산지로는 만두리아(Manduria) DOCG와 포지아(Foggia) DOC 지역이 있다. 만두리아는 스위트한 와인으로 DOCG를 받고 있으나 프리미티보의 레드 와인도 수준급이다. 포지아 산지는 이 지방의 북쪽에 위치하며 플리아에서는 2번째로 큰 도시이다. 이밖에도 루체라(Lucera), 산 세베로(San Severo) 등지가 이름나 있다. 플리아의 총 포도재배 면적은 86,711ha이며 2016년 기준 총 생산량은 4,965,000hl로 나타내고 있다.

■ Albrianza 알브리안짜

알브리안짜 기업은 1981년 로베르토 마제이(Roberto Mazzei)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곳은 이탈리아 각 지역의 최고 와이너리를 선정하여 운영을 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자체적으로 포도밭을 사들여 포도재배와 와인양조를 겸하고 있다. 알브리안짜 기업은 현재 베네토, 베에몬떼, 토스카나, 움브리아, 아브루쑈, 플리아, 시칠리아에 각각의 와이너리를 두고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Albrianza Colle al Vento 4/20(Quattro Venti) Salento Primitivo

■ Cantina Paradiso 칸띠나 파라디조

1950년 플리아에 설립된 칸띠나 파라디조는 현재 3대째를 이어오며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소규모로 시작한 칸띠나 파라디조는 온 가족이 모두 와이너리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토착품종인 네로 디트로이아, 네그로아마로, 팔랑기나 등의 개발과 와이너리 시설 개선으로 칸띠나 파라디조는 이탈리아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Gold Cantina Paradiso Posta Piana
Silver Cantina Paradiso Angelo Primo
Silver Cantina Povero Cabane Langhe Rosso

■ Vigneti del Salento 비네티 델 살렌토

비네티 델 살렌토는 판티니 그룹이 플리아 지역에 오픈한 와이너리이다. 판티니의 수석 와인메이커인 필리포 바칼라로(Filippo Baccalaro)의 지도하에 모든 와인 생산이 이루어진다. 비네티 델 살렌토는 플리아의 산 마르짜노 지역에 포도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선별된 포도를 수확하여 와인을 양조한다. 이곳의 토양은 철분함량이 높은 석회질로 이루어진 붉은 빛의 테라로사로 포도의 품질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Vigneti del Salento I MURI Primitivo Puglia
Silver Vigneti del Salento ZOLLA Primitivo di Manduria
Bronze Vigneti del Salento Vigne Vecchie Leggenda Primitivo di Manduria

■ Orion Wines 오리온 와인즈

오리온 와인즈는 와인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와인 기업이다. 와인메이커인 알렉산드로 미셸론(Alessandro Michelon)을 필두로 마케팅을 총괄하는 루카 포마로(Luca Pomaro), 독일, 미국,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엘레나 사우레티(Elena Ciurletti)가 그들이다. 오리온 와인즈는 이탈리아 전 지역에 와이너리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해외에 알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The Wanted Chard Chardonnay Vino Bianco Italiano
Silver The Wanted Zin Zinfandel IGP Puglia
Bronze The Wanted Cab Cabernet Sauvignon Vino Rosso Italiano

■ Podere 29 포데레 29

포데레 29 와이너리는 플리아의 체르바로 강이 흐르는 포지아(Foggia)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총 1,350ha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재배 이외도 올리브 나무, 포도밭을 보호하는 숲을 만들어 놓고 있다. 포데레 29는 포도나 무를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결과 인증도 받아 놓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대략 95,000병이며 해외시장에서는 이들의 네로 디트로이아가 주목받고 있다. 수입사 더뱅셀렉션

수상와인 리스트

Gold Podere 29 Gelso d'Oro
Gold Podere 29 Unio

■ San Marzano Vini 산 마르짜노 비니

플리아의 타란토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만두리아에 자리하고 있는 산 마르짜노는 조합의 형식을 띠고 만들어졌다. 1962년 19명의 포도 재배자들이 함께 투자해 설립된 이곳은 현재 1,200명의 회원들이 소속된 최대의 와이너리로 성장했다. 이들은 만두리아의 프리미티보를 베이스로 켈리타와 가격을 모두 만족시키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이탈리아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와인 리스트

Gold San Marzano Talo Primitivo di Manduria DOP
Silver San Marzano Collezione Cinquanta Vino Rosso d'Italia +3
Silver San Marzano Talo Primitivo Merlot Salento IGP
Silver San Marzano Vindoro Primitivo di Manduria DOP

■ Schola Sarmenti 스킨라 사르멘티

스콜라 사르멘티는 플리아의 살렌토(Salento)에 본거지를 둔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와인을 양조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스킨라 사르멘티의 로산젤라(Rosangela), 알렉산드로(Alessandro) 형제들은 셀러를 재경비하고 2000년 그들의 첫 수확을 경험한다. 이들은 플리아의 프리미티보, 네그로아마로의 오랜 수령의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어린 나무를 새로 키워 이들의 블렌딩을 시도해보고 있다. 수입사 마슈임

수상와인 리스트

Gold Schola Sarmenti Cubardi IGT Salento Red
Silver Schola Sarmenti Nauna IGT Salento Red

·SICILIA

시칠리아 섬의 와인산지는 동북쪽에 메씨나(Messina)와 그 주변 지역에 산지들이 있다. 메씨나는 이 섬의 주도인 팔레르모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이름나 있는 곳으로 파로(Faro)와 밀라쑈(Milazzo)의 DOC가 존재한다. 동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면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이 있다. 이 산발치에 드넓은 포도밭들이 자리하고 있다. 섬의 서쪽 지대에는 주도인 팔레르모와 마르살라(Marsala) 그리고 트라파니(Trapani) 등의 와인 생산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좀더 남으로 내려오면 이곳의 와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삼부카(Sambuca) DOC가 위치한다. 네로 다볼라로 빛은 와인이 유명하다. 또한 시칠리아에 유일한 최상급의 DOCG를 받고 있는 체라스우올로 디 비포리아(Cerasuolo di Vittoria)가 있으며 네로 다볼라 품종의 고향인 아볼라(Avola)도 찾아볼 수 있다. 시칠리아의 포도재배 면적은 103,063ha이며 2016년 총 생산량은 6,242,000hl이다.



■ Vigneti Zabù 비네티 자부

비네티 자부의 오너인 아데아부라는 남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 1980년 이탈리아로 옮겨와 와인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와이너리의 설립을 꿈꾸었다. 오랜 벗이었던 판티니의 책임 와인메이커인 필리포 바칼라로의 도움으로 포도밭을 사들이고 3년 동안 관리한 뒤 4년째에 되는 해, 처음으로 와인을 출시할 수 있었다. 현재 와이너리는 30ha의 포도밭을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포도를 염선하여 수확하고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Vigneti Zabù Chiantari Nero d'Avola
Silver Vigneti Zabù IL PASSO Nerello Mascalese
Bronze Vigneti Zabù Impari Nero d'Avola

·MARCHE

마르케 지방은 강들이 이룩해 놓은 골과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미풍, 그리고 내륙 쪽 산맥에 의한 바람막이로 인해 포도의 재배가 이상적인 곳이다. 마르케의 최상의 와인이 나는 DOCG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코네로(Conero), 다른 하나는 베르나차 디 세라페트로나(Vernaccia di Serrapetrona)이다. DOC 지역은 15개로 분포되어 있으나 앙코나 지역에 속한 카스텔리 디 예시(Castelli di Jesi)가 유명하다. 이곳은 피시 와인(fish wine)이라 불리는 화이트 품종인 베르디끼오의 명산지이기도 하다. 재배되는 품종으로는 레드에 몬테풀치아노, 산지오베제와 있으며 화이트에 베르디끼오, 트레비아노 등이 있다. 마르케의 총 재배면적은 17,563ha이며 2016년 기준 총 생산량은 1,039,000hl이다.



·Umani Ronchi 우마니 론끼

우마니 론끼는 1965년 마르케에 와이너리를 오픈한 후 아브루쭌까지 포도밭을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의 포도밭은 아드리아해와 아펜니노 산맥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우마니 론끼는 1997년 런던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에서 펠라고 와인이 최우수 레드 와인 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프리미엄 와인협회 '그란디 마르끼'의 회원으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수입사 레벡드매일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Umani Ronchi Casal di Serra
Silver Umani Ronchi Cumaro

·Cantina Casalfarneto SRL 칸띠나 카살파르네토

카살파르네토 와이너리는 앙코나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베르디끼오 품종을 대표하는 카스텔리 디 예시(Castelli di Jesi)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카살파르네토는 이곳에 35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포도밭은 유기농으로 관리되고 있다. 토니(Togni) 그룹의 소유인 카살파르네토는 현재 파올로 토니(Paolo Togni)가 대표로 와이너리 경영을 맡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와인 컴퍼니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와인 리스트

Gold Casalfarneto Cimaio-Marche IGT
Gold Casalfarneto Crisio-Castelli di Jesi Verdicchio Riserva DOCG Classico
Silver Casalfarneto 8 Borghi-Vino Rosso Appassimento

·Velenosi 벨레노지

벨레노지 와이너리는 1984년 안젤라 피오퍼 벨레노지가 5ha를 가지고 설립한 곳이다. 현재는 스텝들도 3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포도밭도 150ha로 규모가 커졌다. 이 포도밭들은 마르케의 중심 지역인 코네로, 앙코나 등지에 산재해 있다. 이곳에서 로쏘 코네로, 팔레리오, 로쏘 피체노 슈퍼리오레, 베르디끼오, 페코리노, 파쉴리나의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감베로 로쏘를 위시해 해외 유명 매체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수입사 더벡셀렉션

수상와인 리스트

Silver Velenosi Reve
Silver Velenosi Roggio del Filare
Silver Velenosi Montepulciano Prope

·BASILICATA



바실리카타 와인산지는 이 지방 북쪽에 위치한 볼투레 화산이 있는 지역에서 질 좋은 와인이 나고 있다. 중심 지역은 아체렌짜와 포텐짜 등지이다. 알리아니꼬의 DOCG는 2011년 지정된 것으로 정식 호칭은 알리아니꼬 델 볼투레 수페리오레(Aglianico del Vulture Superiore)이다. 두 번째 산지는 뿔리아와 접경 지역을 이루는 마테라 DOC 지역이다. 마테라는 바실리카타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도 유명하다. 인류 삶의 현장을 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굴 주거지가 남아있다. 이는 1993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다. 바실리카타의 포도밭은 대체로 표고가 약간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평균 표고는 450~600m 수준이다. 토양은 산악지대가 점토와 석회암으로 되어있고 평원지대는 주로 화산토와 점토로 이루어진다. 바실리카타의 포도재배면적은 4,000ha이며 2016년 기준 178,000hl의 생산량을 보인다.

·Vigneti del Vulture 비네띠 델 볼투레

비네띠 델 볼투레는 바실리카타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것을 5년 전 판티니 그룹이 인수해 최신 시설을 투자해 놓은 곳이다. 비네띠 델 볼투레 와이너리는 볼투레 지역 아체렌짜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알리아니꼬와 그레꼬의 포도재배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생산라인은 역시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편하게 시음할 수 있는 테이스팅 룸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와인 리스트

Gold Vigneti del Vulture Piano del Cerro
Gold Vigneti del Vulture Pipoli Greco Fiano
Gold Vigneti del Vulture Pipoli Rosato Basilicata

·Elena Fucci 엘레나 푸치

엘레나 푸치 와이너리는 2000년에 설립되었다. 와인메이커이자 주인인 엘레나 푸치는 젊은 와인 전문가로 직접 와인을 만들어 출시한 것이 2001년이다. 그녀는 아버지 살바토레(Salvatore)의 도움으로 알리아니꼬 델 볼투레 티톨로라는 와인을 시중에 내놓았다. 티톨로라는 이름의 포도밭에서 수확한 알리아니꼬로 만든 이 와인은 엘레나 푸치의 이름을 시장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후 그녀의 행보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Bronze Elena Fucci Titolo

·Re Manfredi 레 만프레디

1998년에 설립된 레 만프레디 와이너리는 알리아니꼬가 재배되는 중심 지역인 볼투레 DOC에 위치한다. 즉 베노자(Venosa)에서 몇 km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이곳은 총 120ha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포도나무는 귀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세부터 사용되었던 오래된 건물의 지하 셀러는 레 만프레디가 재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포도나무 재배의 지속적인 연구로 우아한 와인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와인 리스트

Gold Re Manfredi Serpara